



## I. 이달의 소식

- |            |     |
|------------|-----|
| 1. 정기모임 안내 | 1쪽  |
| 2. 지부소식    | 28쪽 |

## II. 특집

- |                      |    |
|----------------------|----|
| 1. 태양계/태양(2) - ACT뉴스 | 2쪽 |
|----------------------|----|

## III. 내용

- |  |     |
|--|-----|
| 1. 정재훈칼럼(18) 원자, 동위원소, 방사성연대측정법        | 4쪽  |
| 2. 성경여행(87) 요나의 이야기 - 이종현역             | 8쪽  |
| 3. 창조기사(43) 갈릴레오 400주년, 신화냐 사실이나?-이종현역 | 10쪽 |
| 4. 감사과정 소감문 및 독후감                      | 15쪽 |

## 인사말



계절이 알록달록하게 물들어가는 늦가을입니다. 왜 나무는 예쁜 색깔의 단풍잎을 만들까요? 겨울에 나무의 과도한 수분 방출을 방지하기 위해 단풍이 들고 나뭇잎이 떨어진다는 과학적인 설명은 어떨까요? 또는, 넓은 잎을 가진 활엽수는 겨울에도 생존할 수 있도록 오랜 시간 동안 진화해왔다는 설명은 어떨까요? 물론 이런 진화론적인 설명은 틀렸죠. 다른 관점으로는, 나무가 자신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 모든 가지들을 하늘로 향하고 알록달록 예쁜 나뭇잎들을 흔들어 찬양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하면 어떨까요?

생명.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매일 매일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 몸짓으로, 향기로, 소리로, 언어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창조과학이란, 과학이라는 악기를 울려 밤하늘의 은하수를 넘어 창조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생명체들의 오케스트라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바쁜 발걸음을 멈추고 빨강게 물든 단풍잎에 가만히 귀 기울여 보면 어떨까요.

- 한국창조과학회 대구지부 강사 김영호 올림 -

### 1. 대구지부 정기모임 안내

한국창조과학회 대구지부에서는 2016년 11월 17일 **목요일 오후 7시**에 지부사무실에서 정기모임을 갖습니다. 이번 11월에는 이종현지부장님이 “유신진화론의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교제와 나눔의 자리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6시 30분부터 간식)

창조과학회 대구지부 사무실/전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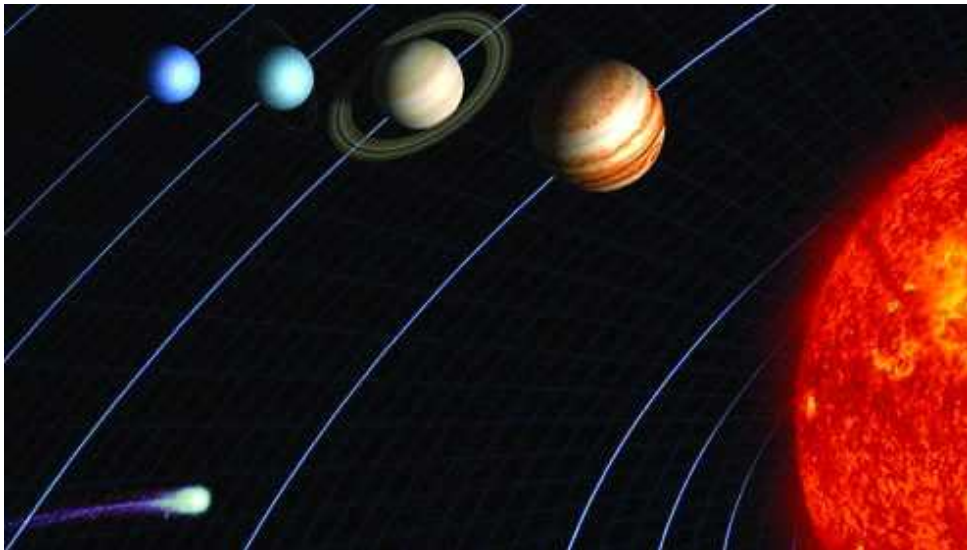
주소: 대구시 남구 현충로 96(4층)

문의: ☎ 070-4095-6420, 010-2051-0922



## 태양은 생명을 위해 디자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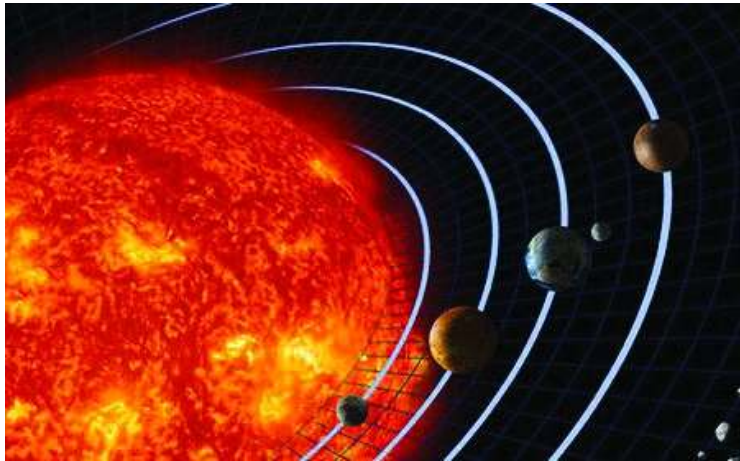
이충현역, 출처: Jason Lisle, Ph.D.(천체물리학), Acts & Facts 42(7):10-12. ACT뉴스 2015년 6월



### 생명을 위해 디자인됨

천문학자들은 태양을 주계열성(main-sequence star)으로 분류한다. 태양은 다른 별들과 구성성분이 거의 비슷하고, 온도와 밝기 또한 다른 별들의 평균 정도 된다. 여러 모로 보아, 태양은 단지 일상적인 별에 불과하다. 그러나 다른 면에서, 태양은 지구에서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하여 디자인된 것이 명백하다. 어떤 별들은 엄청난 양의 치명적인 방사선을 내뿜는 슈퍼 플레어(superflare)를 가지고 있다. 태양은 다행히도 슈퍼 플레어를 가지고 있지 않다. 태양의 플레어(flare)는 약하다. 태양의 온도와 지구로부터의 거리는 생명을 위하여 최적화되어 있다. 대조적으로, 태양보다 더 밝은 별들은 생명체에 치명적인 자외선을 훨씬 더 많이 생산한다. 태양보다 더 차가운 별들은 가시광선보다는 많은 적외선을 방출한다.

은하계 안의 태양의 위치 또한 생명과 과학을 위하여 최적화된 듯 보인다. 만약 태양이 은하의 중심에 좀 더 가까웠다면, 해로운 방사선으로 인해 큰 문제가 되었을 것이다. 만약 태양이 조금 더 은하의 바깥쪽에 놓였다면, 하늘의 절반에서 별을 볼 수 없을 것이며, 계절을 측정하거나 우주를 연구하는 일이 더 어려워졌을 것이다. 이상하게도, 태양은 다른 비슷한 별들과 비교했을 때, 리튬이 약 100배정도나 부족하다. 우리는 그 이유를 아직 알아내지 못했지만, 아마도 또 다른 디자인적 특징으로 드러날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흥미로운 연구 주제이다.



### 태양은 창조를 확증한다

태양은 창세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오랫동안 문제 거리였다. 세속주의자들은 약 50억년간 수소의 핵융합이 태양에서 일어났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핵융합은 중심부의 밀도를 서서히 변화시키며, 별이 서서히 밝아지게 한다. 물론 6,0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는 그 영향이 미미하다. 그러나 만약 태양이 수십억 년 되었다면, 과거에는 현재보다 30퍼센트 정도 더 어두웠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보다 어두웠다면, 지구는 퐁퐁 얼어붙은 땅이었을 것이며, 생명은 살 수 없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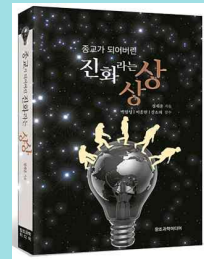
태양은 저절로 형성되었다는 시나리오를 거부한다. 세속적 천문학자들은 현재 태양(및 다른 별들)이 우주에 존재하는 거대한 수소와 헬륨 기체인 성운(nebula)이 뭉쳐서 형성되었다고 믿고 있다. 천문학자들은 수천 개의 성운을 발견했지만, 그 누구도 성운이 뭉쳐서 별이 생기는 것을 관찰한 적이 없다. 단 한번도. 성운의 기체가 바깥쪽으로 퍼져 나가려는 압력은 기체가 서로 당기는 미약한 중력보다 훨씬 더 크다. 중력이 어떻게든 기체 압력을 극복했다 치더라도, 자기장과 각 운동량으로 인해서 더 이상 기체가 뭉치지 못하게 될 것이며, 태양은 전혀 저절로 형성될 수 없다. 과학은 성경말씀의 가르침을 확증하는 듯 보인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창조**

## 18. 원자, 동위원소, 그리고 방사성 연대측정법

종교가 되어버린 진화라는 상상	
18	원자, 동위원소, 그리고 방사성 연대측정법
한국창조과학회 대구지부 강사 정재훈	



오랜 연대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방사성 연대측정법’을 신뢰한다. 오늘날 방사성 연대측정법은 연대를 측정하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도구로 군림하고 있다. 그러나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그다지 신뢰할만한 측정법은 아니다.

여기서 잠깐, 지구의 기원 연대를 밝히는 일이 중요할까? 강의를 나가면 종종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다. 그들이 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한 까닭은 무엇일까? 그들이 질문을 한 까닭은 그 이유가 궁금해서라기보다는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들의 말처럼 오랜 연대설을 지지하는 것이나 짧은 연대를 지지하는 것이 기독교적 구원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연대문제는 구원과 관계가 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성경의 사실성, 권위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일단 오랜 연대설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과는 다르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선포하고 있고, 성경에 기록된 족보와 단서들로 지구의 나이를 약 6천 2백년 안팎으로 추산할 수 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몇 번이나 당신께서 6일 동안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음을 언급하셨고 신약에서 사도들도 창세기의 창조를 사실로 언급했으며, 예수님께서도 모세의 기록과 창세기에 기록된 대로의 창조를 인정하셨다.

오랜 연대설을 주장하는 어떤 창조론자는 창조기간의 하루를 '24시간 단위의 하루'가 아니라 '기간'이라고 주장한다. 어떤 창조론자는 창세기에 기록된 창조사건을 역사적인 기록이 아니라 고대인들의 신관과 우주관이 반영된 창조설화로 보며, 또 어떤 창조론자는 성경 자체를 하나의 히브리 문학으로 보고 성경에 기록된 창조사건을 상징적 의미로만 받아들이기도 한다. 그들이 이런 관점들을 가지고 성경을 대하기 때문에 성경보다는 무신론적이고 자연주의적인 데이터들을 더 신뢰하는 것이다.

성경과 과학이 대립되는 상황에서 그들이 진리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자신들의 이성이다. 그들은 성경보다는 무신론적 과학이 더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심지어 어떤 창조론자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보기도 한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보는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명백히 모순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오늘날의 마음 아픈 현실이다.

지금부터 오랜 연대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어떤 방법으로 지구의 나이를 측정했는지, 젊은 연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근거로 연대측정법들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는지, 어떻게 지구의 나이를 젊은 것으로 주장하는지와 지구연대에 관한 창조론 안에서의 이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로 하자.

## 원자, 동위원소 그리고 방사성 연대측정법

방사성 연대측정법을 알려면 우선 '원자'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원자는 물질의 기본단위 입자이다. 이 원자라는 이름도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가 만든 것이다.

그리스의 철학자 '데모크리토스(Democritos)'는 물질을 계속 쪼개면 더는 쪼갤 수 없는 것이 나올 것으로 생각했고, 더는 쪼갤 수 없는 가상의 입자를 그리스어로 더는 쪼갤 수 없다는 뜻의 '아톰(atom, 원자)'이라고 불렀다.

19세기 영국의 과학자 '돌턴(John Dalton)'은 근대 원자설을 정리하면서 데모크리토스가 만든 용어를 그대로 사용했다. 더는 쪼갤 수 없다는 원자의 정의는 원자도 양성자와 중성자, 전자 등으로 쪼개진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수정해야 했지만, 일반적으로 모든 물질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본다.



원자의 크기는 매우 작는데, 수소원자의 지름은 0.1 nm 로 1 mm 의 10,000,000분의 1에 불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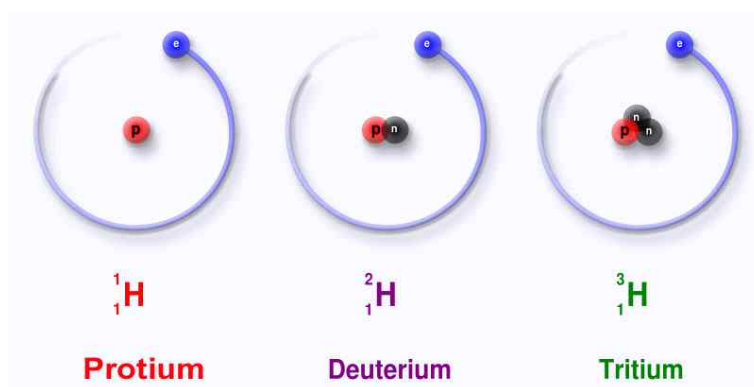
원자는 원자핵과 핵 주위를 도는 아주 작은 전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원자핵은 크기가 엇비슷한 양성자와 비슷한 질량을 가졌으나 전하를 띄지 않는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다.

원자핵 속의 양성자 수는 원자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양성자의 개수로 ‘원자번호’를 정했는데, 원자번호가 1인 수소는 1개의 양성자와 1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고, 원자번호 92인 우라늄은 92개의 양성자와 92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다. 이 양성자의 수로 원자마다 특유의 성질을 가지게 된다.

원자들로 구성되어 다른 입자들과 구별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입자를 ‘분자’라고 하는데, 수소원자 2개는 수소의 성질을 띠는 수소분자(H<sub>2</sub>)가 되고, 산소원자 2개는 산소분자(O<sub>2</sub>)가 되며, 탄소원자 1개와 산소원자 2개는 이산화탄소(CO<sub>2</sub>) 분자가 된다.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을 말할 때는 ‘원자’라 하고 그 원자의 성분을 말할 땐 ‘원소’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현재까지 발견된 원소는 118종이다.

같은 이름의 원소라 하더라도 양성자의 수는 같으나 중성자의 수가 다른 원소가 있다. 이들을 ‘동위 원소(isotope)’라 한다. 수소로 예를 들면, 양성자 1개만으로 이루어진 수소를 ‘경수소’라 하고, 양성자 1개와 중성자 1개로 이루어진 수소를 ‘중수소’, 양성자 1개와 중성자 2개로 이루어진 수소를 ‘삼중수소’라 한다.



#### 〈수소 동위원소〉

이들 원소는 모두 1개의 양성자를 가지고 있어서 수소라고 불리지만, 각각 중성자가 없거나, 1개 또는 2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 질량과 물리적 성질은 조금씩 다르다. 이들을 수소의 ‘동위원소’라 한다.

대부분의 원자들은 핵 안의 양성자나 중성자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지만 어떤 원자들의 양성자나 중성자는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런 원소의 상태를 불안정하다고 한다.

불안정한 상태의 원자핵이 알파( $\alpha$ )선, 베타( $\beta$ )선, 또는 감마( $\gamma$ )선 같은 방사선을 방출함으로써 안정한 상태의 다른 원자핵으로 바뀌는 과정을 ‘방사성 붕괴 (radioactive decay)’라고 하고, 이때 나오는 입자나 전자기파를 ‘방사선 (radiation)’이라고 하며 이 방사선의 세기를 ‘방사능 (radioactivity)’이라고 한다.

방사성 붕괴에는 알파( $\alpha$ )붕괴, 베타( $\beta$ )붕괴, 감마( $\gamma$ )붕괴 등이 있는데, 알파붕괴가 일어나면 원자의 원자번호는 2, 질량수는 4가 감소되고, 베타붕괴가 일어나면 질량수에는 변화가 없지만 원자번호가 1 증가하거나 감소되며, 감마붕괴가 일어나면 원자번호나 질량수에는 변화가 없지만 핵의 에너지 준위가 안정된 상태로 낮아진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라듐의 동위원소에는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88개의 양성자와 138개의 중성자를 가진 라듐-226은 알파붕괴를 통해 86개의 양성자와 134개의 중성자를 가진 라돈-222 기체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안정한 납-206으로 붕괴된다.

방사성 연대측정법은 모원소(붕괴 전의 원소)/자원소(붕괴 후의 원소)의 질량비를 이용하여 연대를 추정하는 연대측정법이다. 칼륨-40은 방사성 붕괴를 통해 아르곤-40으로 바뀌고, 탄소-14는 질소-14로 바뀐다. 방사성 연대측정법을 신뢰하는 학자들은 붕괴속도가 일정했고 ‘반감기 (half-life)’가 변하지 않았을 것으로 ‘가정’하고 모원소와 자원소의 질량비를 이용하여 연대를 추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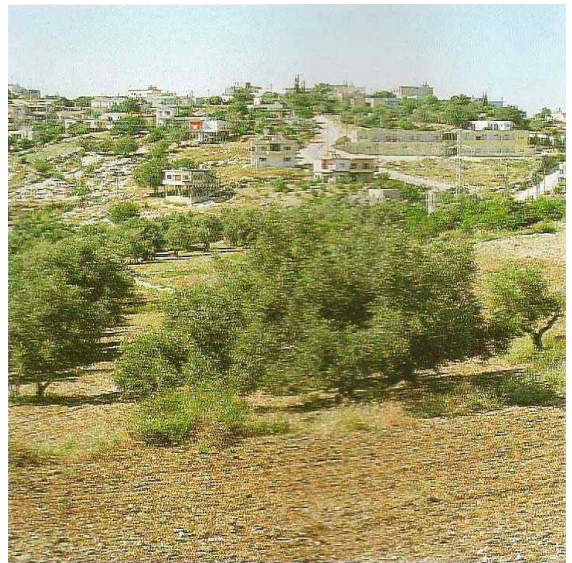
반감기란 어떤 특정한 방사성 원소의 양이 방사성 붕괴에 의해서 반( $1/2$ )으로 줄어드는 데 걸리는 시간을 뜻한다. 칼륨-40의 반감기 추정치는 약 13억 년 인데, 일정량의 칼륨-40이 약 13억 년 뒤에는 절반이 붕괴하여 아르곤-40으로 바뀔 것이며 다시 약 13억 년 뒤에는 남은 칼륨-40의 절반이 아르곤-40으로 바뀐다고 한다.

그리고, 루비듐-87의 반이 붕괴하여 스트론튬-87로 바뀌는 데는 490억 년이 걸리고, 토륨-232의 반이 납-208로 바뀌는 데는 140억 년, 우라늄-238의 반이 납-206으로 바뀌는 데는 45억 년, 우라늄-235의 반이 납-207로 바뀌는 데는 약 7억 4백만 년, 알루미늄-26의 반이 마그네슘-26으로 바뀌는 데는 74만 년, 탄소-14의 반이 질소-14로 바뀌는 데는 5,730년이 걸린다고 한다. [246]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창조](#)

## 요나의 이야기 (요나서)

요나는 엘리사의 시대에서 그리 오래 지나지 않아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었으며, 아마도 요아스 왕의 통치 기간 동안 엘리사의 사역과 겹쳤을 수도 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했을 때 그는 도망가려고 했다. 요나는 두려워서 스페인 남쪽으로 짐작되는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탔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다에 폭풍을 보내셔서 마침내 선원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져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거기서 커다란 물고기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물고기는 그를 육지로 데려다 주었고 그때 요나는 고분고분히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



<요나의 출생지인 갓 헤퍼(Gath Hepher - 오늘날의 마샤드(Mashhad)). 그 마을은 나사렛에서 북쪽으로 3 내지 4마일 정도 거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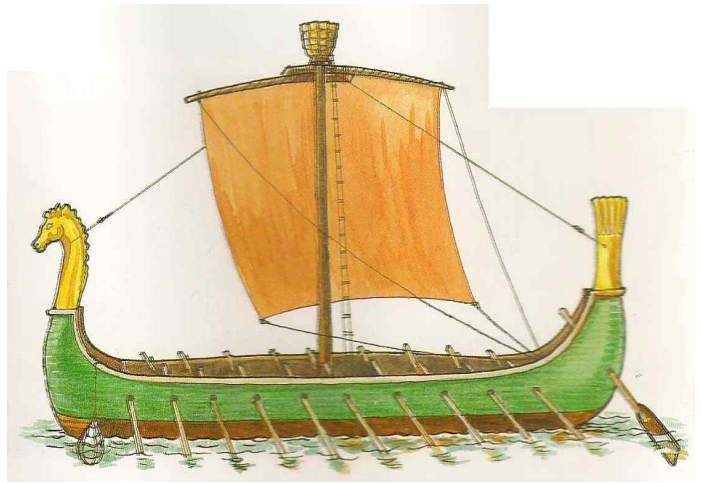
언제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에게 앗수르의 도시인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우상에서 떠날 것을 전하라고 말했다. 니느웨는 BC 612년에 바벨로니아인들에게 멸망했으므로, 요나의 사역은 이보다 이전이어야만 하며, 여호아스 혹은 요아스(798-782)와 북왕국의 여로보암 2세(793-753)의 통치기간 동안일 것이다. 그 당시 앗수르는 이스라엘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었으므로 요나의 메시지는 평화를 호소하는 것이었을 것이다.



## 니느웨

요즘의 이라크에 있는 티그리스강 바로 동쪽에 니느웨의 폐허가 있다. 요나의 시대에는 그 도시가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중의 하나였으며 가장 인상 깊은 도시였다. 니느웨는 앗수르 제국의 수도였으므로 요나가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한 것을 이해할 만하다.



<요나의 시대에는 많은 배들이 지중해를 항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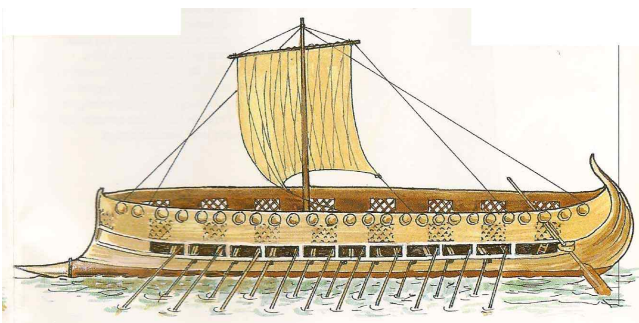
사르곤 대제는 BC 700년에 니느웨에서 북쪽으로 13마일 떨어진 코르사밧으로 수도를

요나는 욥바에서 이 그림에 보인 것 같은 페니키아 상선을 탔을 것이다.>

옮겼고, 니느웨의 중요성이 쇠퇴하였다. 그러나 그의 아들 산헤립은 니느웨에 거대한 궁전과 강력한 벽을 쌓음으로써 그 도시의 위대함을 회복하였다. 그 도시는 동물원과 색다른 정원으로 둘러 있었다.

## 배와 항해

고대의 배는 부서지기 쉬운 용기였다. 그 모양은 나라마다 약간 달랐다. 배는 4월에서 10월 사이 날씨가 좋은 달에만 항해를 했다. 상선은 넓으며 소나무로 만들었다. 커다란 돛으로 바람을 잡았고, 한편 별을 보고 항로를 잡았다. 창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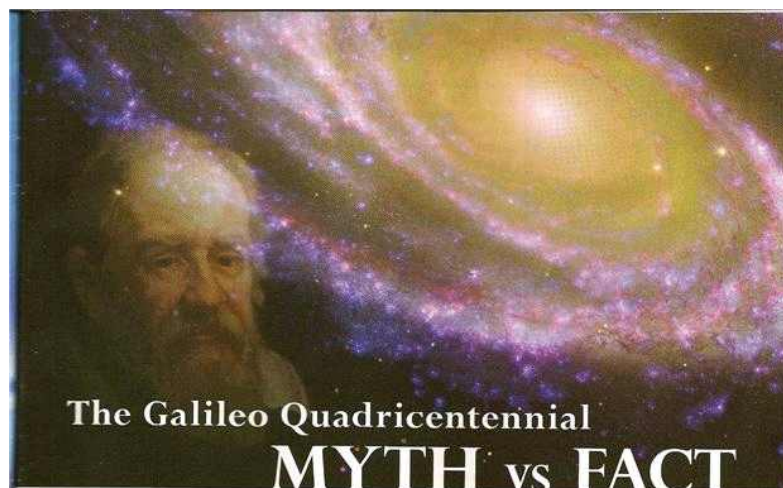


<요나의 시대에 또 다른 배인 페니키아 전함>



<요나의 조롱박이 이렇게 생겼을 것으로 짐작한다. 이 식물의 학명은 Ricinus communis이다. 그러나 정확히 그 식물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 갈릴레오 400주년, 신화나 사실이나



2009년은 찰스 다윈(1809-1882)의 출생 200주년이 되는 해이며, 그를 지지하는 진화론자들은 모든 사람에게 그것을 알리고 싶은 것이 당연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경쟁자가 있는데, 2009년을 “국제 천문학의 해”로 이름 붙이기를 원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2009년이 보통은 첫 번째 이름으로 알려진 갈릴레오 갈릴레이(1564-1642)가 망원경을 최초로 사용한지 40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이다. 경쟁적으로, 무신론자들은 “과학대 종교”의 이야기에 오랫동안 갈릴레오를 사용해 왔다. 그런데 **사실**은 어떠한가?

**과학대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과학대 과학의 문제이다.**

많은 과학 역사가들은 갈릴레오에게 처음으로 대항한 것은 교회가 아니라 **과학 기관**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 당시에 널리 유행하던 “과학적인” 지혜는 아리스토텔레스 및 프톨레마이오스 이론, 즉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있고 다른 천체는 지구 주위로 매우 복잡한 궤도를 이룬다는, 다루기 힘든 **지구중심설**이었다. 그것은 **이교도의 철학** 체계에 기원을 두고 있었다.

갈릴레오는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돈다는 코페르니쿠스의 초기 개념, 즉 **태양중심설** 또는 **지구운동설**을 지지함으로써 이 모든 것에 도전을 했다. 그리고 오늘날의 진화론 기관들이 그러하듯이, 아리스토텔레스 학파의 기관에서 맹렬하게 반응했다. 그에 대해 Arther Koestler는 이렇게 썼다:

“그러나 갈릴레오에 대한 적개심이 결코 약화되지 않는 사람들의 강력한 집단이 있었다: 그들은 대학에 있는 아리스토텔레스 학파 사람들이었다. ... 학계의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혁신이라는 것이 이 중의 위협이다: 그것은 그들의 엄숙한 권위를 위태롭게 하며, 그들의 전부인 힘들게 쌓아올린 지적 체계를 붕괴시킬지 모른다는 깊은 두려움을 불러일으킨다. 학술적으로 훨씬 못 미치는 사람들은 천재들의 저주가 되어 왔다. ... 이런 위협이 단티스쿠스(Dantiscus) 주교나 교황 바울 3세가 아니라, 코페르니쿠스로 하여금 평생동안 침묵하도록 만들었다.”

“종교적 기반에서 코페르니쿠스설에 처음으로 극심한 공격을 가한 것 역시 목사 진영이 아니라, 열렬한 아리스토텔레스 그룹의 지도자인 콜롬베(Colombe)와 같은 평신도였다.

### 처음에 교회는 갈릴레오에 대해 매우 개방적이었다.

그것은 주로 “종교대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 초기 교회의 입장을 예로 보여준 사람이 바로 그 당시 최고의 신학자인 로버트 벨라마인(Robert Bellarmine) 추기경이다. 그는 갈릴레오의 모델이 수학적으로 더 간단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뛰어나게 좋은 감각”이라고 말했으며, 이어서 이렇게 말했다:

“... 태양이 우주의 중심에 있고 지구가 세 번째 행성이며,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것이라는 **진짜 증거가 존재한다면**, 우리는 그와 반대로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성경 구절들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매우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거짓된 발언을 해서 그것이 나중에 진실이라고 밝혀지는 것보다 차라리 그것들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해야만 한다. 그러나 **아무도 나에게 그것을 증명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는 그러한 증거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실제로, 그 당시에 갈릴레오는 자기의 주장을 증명하지 **못했었다**. 사실상, 조류를 이용한 그의 최선의 “증명”은 잘못된 것으로 판명이 났다. 그 당시에 교회가 가져볼 수도 없었던 지식을 가지고 교회를 판단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

### 갈릴레오의 파멸에 스스로가 미친 영향

불행하게도, 갈릴레오의 희생은 주로 자기 자신의 오만과 무례한 저작 스타일 및 불행한 우정 때문이었다. 한때 갈릴레오는 나중에 교황 우르반 8세(1568-1644)가 되는 Maffeo Barberini의 절친한 친구였는데, 그는 이 업적의 커다란 숭배자였으며, 그의 높은 자부심을 공유했었다. 그러나 이 상호

추종이 쓰러린 결말로 끝을 맺은 것은, 갈릴레오가 그의 고전적인 1632년 책, 즉 ‘두 개의 중요한 세계관에 관한 대화’(The Dialogue Concerning the Two Chief World Systems)라는 책을 썼을 때이다. 이것은 지구중심설과 지구운동설에 관한 가상의 논쟁이었다. 지구중심설을 옹호한 사람은 “심플리시오”라는 등장인물인데, 책에서 그는 바보처럼 보였고, 우르반은 심플리시오의 입에서 나온 논의가 바로 자기 자신의 것임을 인식하였다. 우르반은 자기의 친한 친구로부터 배반을 당한 것 같은 느낌에 격분하였으며, 종교재판관은 겉으로 보기에 무관심하였는데 재판을 시작한 것은 바로 그였다.

거기에다가, 다른 천문학자들을 향한 갈릴레오 자신의 오만이 도움이 되지 않았다. 예를 들면, “살시(Sarsi) 씨 당신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모든 하늘의 새로운 현상을 발견한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니고 전적으로 내게만 공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어떤 악의나 시기로도 은폐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 교회의 대실수

불행하게도, 교회는 과학 기관의 잘못된 영향을 받아서 그 당시에 유행하던 모델을 성경 안에 집어 넣어서 읽으려고 하였지만, 아래에서 보듯이 성경은 그것을 가르치지 않는다. 따라서 사실상 그들은 요즘의 교회가 진화론과 긴 연대라는 현대의 “과학적” 유행을 성경 안에 넣어서 읽으려고 하는 것과 동일한 실수를 저질렀던 것이다.

여기에는 시편을 강탈하여 과학 기관의 모델을 그 안에 넣어서 읽는 것이 포함된다. 그러나 시편은 명백히 시적인 것이기 때문에(창세기처럼 역사적인 이야기체가 아니다), 그것을 우주론 모델의 기초로 억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시편 93:1을 보자: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the world also is stablished, that it cannot be moved). 다음 절은 이렇게 말한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Thy throne {is} established of old). 여기서 같은 히브리 단어 쿤(koon)을 ‘견고히 서서’(stablished)와 ‘견고히 섰으며’(established)로 번역했다. (그 뜻은, 반드시 고정되어 있다거나 움직이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견고한, 안정된, 영구적인 이라는 뜻이다.) 또한, 시편 16:8에서는 흔들리다(move)라는 동일한 의미로 히브리 단어 모트(mote)를 사용했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I shall not be moved). 분명히, 회의론자라 할지라도, 시편 기자가 한 장소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비난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가 의미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길을 벗어나지 않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땅이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 마련하신 공전과 자전의 정확한 양상을 벗어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물리학도 역시 오류가 없다. 모든 운동은 **참고틀에 대하여** 기술해야 한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어떤 참고틀을 선택해도 좋다. 성경은 오늘날 우리가 그러하듯이 단순히 참고틀로서 지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현대 천문학자들까지도 “태양빛의 길에 있는 곡률을 따라 지구가 회전한 길을 보라”라고 말하는 대신에 “아름다운 일출을 보라”라고 말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서있는” 차에 대해 말할 때는 그것이 항상 **지반에 대해 상대적으로** 서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탁상공론가만이 실제로 그것은 지구가 지축을 중심으로 자전함으로 인해 약 1,670km/h의 속도로 이동했고, 태양 주위로 108,000km/h로 공전했으며, 은하계 주위를 900,000km/h로 이동한다고 꼬집어 말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제한속도도 **지반에 대해 상대적으로** 맞춰진 것이다.

### 지구가 중심이라는 오만?

많은 반 유신론자들은 갈릴레오가 우주의 중심으로부터 사람을 끄집어내었고, 그것은 인간의 오만을 치료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를 칭송한다. 대표적인 사람이 물리학자 로렌스 크라우스(Lawrence Krauss)로 이렇게 말했다. “갈릴레오는 우리를 우주의 중심으로부터 끄집어냈다. 얼마나 더한 추락을 우리가 가질 수 있었던가?”

그러나 이것은 역사적 배경에 대해 완전히 무지함을 보여주고 있다. 구식의 지구중심적 관점, 즉 지구가 중심이라는 생각은 전혀 계발되지 않았다. 교회 역사의 대부분에서, 그 중심은 **가장 낮아야** 할 장소로 여겨졌었다. 가장 낮은 곳은 지구 중심에 있는 하데스(음부)였으며, 지구 표면에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이 그 다음으로 나쁜 곳이었고, 하늘의 완전함에 비하면 매우 부패했다. 지구 중심으로부터 훨씬 더 멀면 멀수록 하늘에 더 가까워지는 것으로 생각했다.

지구와 꽤 가까이에 있는 달은 과도기적인 장소로 간주된다. 태양은 보다 더 높은 면에 있으며, 행성들은 아주 좋다. 그들의 천체는 불멸하는 제5원소로 되어있다. 그렇지만 멀리 있는 항성보다는 더 높지 않다. 한편, 궁창은 항성들보다도 더 멀리 있는 것으로 묘사되었으며, 하나님의 보좌는 그보다 훨씬 더 멀리에 있다.

그러므로 지구가 중심으로부터 멀리서 움직인다는 것은, 중세시대의 배경으로 볼 때 사실상 그것을 **높여주는** 것이다. 오히려, 실제로 과학 기관을 당황하게 한 것은 갈릴레오가 **태양에서** 흠(태양 흑점)을 발견했다는 것인데, 정확히 말해서 그것은 **천체**가 완전하다는 개념을 손상시키는 것이었다.



## 갈릴레오는 결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

반유신론 잡지인 **New Scientist**마저도 “갈릴레오의 카톨릭 믿음은 그의 발견에 의해 하나도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인정했으며, 이것이 갈릴레오의 위대함에 먹칠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졌다.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교회의 수사신부였던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1473-1543)의 생각에 살을 덧붙인 것뿐이었다. 요하네스 케플러(1571-1630)는 갈릴레오의 이론을 적용하여 관측함으로써, 행성들이 타원 궤도로 움직인다는 것을 알아냈고, 그의 과학 연구는 “하나님을 따라 그분의 생각을 생각하는 것”이라는 유명한 말을 했다. 아이작 뉴턴 경(1643-1727)은 운동과 중력의 법칙을 알아내어 이 모든 것을 설명했으며, 과학에 관한 것보다도 성경 역사를 방어하는 글을 더 많이 썼다. 또한, 이 네 사람은 젊은 지구를 믿는 창조과학자였음을 주목하라.

## 결론

토마스 셔마허(Thomas Schirrmacher) 박사가 **창조지(Journal of Creation)**에서 훌륭한 기사로 요약했듯이:

“전설과는 다르게, 갈릴레오와 코페르니쿠스 체계는 교회 관리들에게 잘 받아들여졌다. 갈릴레오는 자기 자신의 오만과, 그의 동료의 시기 및 교황 우르반 8세의 정책의 희생물이었다. 그는 성경을 비판했다고 기소된 것이 아니라 교황의 법령에 따르지 않아서 기소된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보았듯이, 그 두 체계의 차이는 단지 참고틀의 문제였을 뿐이다(아래의 부록을 보라).

마지막으로, 갈릴레오가 지구를 그 중심위치로부터 끄집어냄으로써 지위를 격하시켰다고 하는 주장은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정 반대이다.

### (부록) 상대성 원리 대 갈릴레오 신화

최고의 우주론자인 프레드 호일 경(1915-2001)은 현대의 물리학자들이 벌이는 논쟁은 찻잔 속의 폭풍우와 같다고 설명했다: “두 설명(지구 중심설과 지구 운동설)의 관계는 단지 좌표변환의 문제로 귀착되는데, 그것은 아인슈타인 이론의 주요 교의이다. 즉, 서로 좌표변환 관계에 있는, 세상에서의 임의의 두 관측법은 물리적 관점에서 보면 전적으로 동일하다. ... 오늘날 우리는 물리적 견지에서는 코페르니쿠스 이론은 ‘맞고’ 프톨레마이오스의 이론은 ‘틀리다’고 말할 수 없다.”

출처 : Creation ex nihilo Vol. 31(2009), No. 3, pp. 49-51 **창조**

## 1. 강사과정 수료 소감(우재영)

초급과정, 심화과정을 거쳐 강사과정까지 오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라고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가르침이고, 당연한 활동임에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별난 사람들로 비쳐지고,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받게 되는 것이 슬픈 일입니다.

그만큼 세상이 혼란하고,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싸움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창조 과학을 한다고 하면 근본주의니, 성경의 문자적 해석에 갇힌 사람들이니 하는 비난을 받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모든 말씀이 진리라는 것에서 조금도 양보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어찌면 당연히 알아야 하고,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모르는 것이 더 많고, 새로운 영역들이 더 추가되어서 감당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많은 자료가 있어도, 그것을 논리적으로 배열한다거나, 설득력 있게 조직해서 발표하는 것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교수님들과 강사님들이 강의하시는 내용들을 들으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지만, 익숙치 않은 용어나 개념에 어려움이 있었고, 실제로 인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것을 전달하고 전달 받으려 하니 무리가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겨집니다. 강사님들께 더 많은 시간을 요구하는 것은 욕심인줄 알지만, 온, 오프라인을 동원해서 집중적인 강의와 질의응답 및 시연도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강사과정을 수료하게 되더라도 이제 준비하는 과정의 시작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배우겠습니다.

창조과학회가 아니었으면 만나지 못했을 법한 좋은 분들을 만나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공부하고 교제한 것 정말 귀한 은혜였습니다.

풍성한 나눔에 감사드리고, 서로 배려하는 모습에 감사드리고, 지부장님과 교수님들과 강사님들 모두 부족한 저희들을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창조**

## 2. 창조과학회 강사과정을 마치며(이선정)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창조과학회 대구지부에 감사드린다. 보잘 것 없고 아는 것도 별로 없는 내가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에 이어 강사과정까지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감히 생각하지 못했다. 20여 년 전 즈음에 창조과학에 대한 궁금증이 컸었으나 바쁘다는 핑계로 또한 어려운 거라는 염려로 더 이상 알아보지 못하고 배우고 싶은 마음을 뒤로 하고 마음을 접었었다.

퇴임 이후 제 2의 인생을 살리라 다짐하며 그동안 미뤄두었던 성경공부도 다시 시작하고 평소 배우고 싶었던 식생활 공부도 하면서 백수가 과로사 하겠다는 말까지 들으며 2년째 열심히 자유부인으로 살았다. 그동안 성경반 강의를 듣다가 강사권사님을 통해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냥 이끌려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창조과학 기본과정을 들었는데 새로운 신세계가 열리는 것 같았고 이거야말로 청소년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가장 큰 지름길이겠구나 생각이 들어 눈이 번쩍 떠졌다.

사실 우주의 팽창, 밀러의 실험, DNA 등등 ... 자연과학을 배우지 않은 내게는 많이 어려운 분야여서 강의를 녹음하고 반복하여 들으면서 강의를 들어왔다. 강사과정을 등록하면서 내가 직접 강의를 해야 한다는 애길 듣고 살짝 후회도 했지만 지나고 보니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직접 강의를 준비하면서 강의 주제 내용을 충분히 알기 위해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으며 궁금한 것은 물어가면서 열심히 준비하였고 덕분에 내 머리 속에도 많은 지식이 쌓여갔고 궁금한 것도 많이 생겨났다. 또한, 어린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도 깊이 생각하게 되고...

사실 강의하는 건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강의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좀 힘들었다. 적은 나이가 아니다보니... 또한 강의 이후 교수님과 팀장님의 피드백을 받으면서 공부가 많이 되었다. 꼭 강의 내용만이 아닌 강의의 스킬도 생각하게 되고 강의자료 만들 때 알아야 할 점 등등... 여러 가지를 얘기해주셨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특히, 강기태 팀장님이 얘기하신 미국 창조과학회 강의 얘기는 내게 큰 도전이 되었다. 강의는 5분 만에 끝내고 나머지 시간에 기타를 치며 노래한다는 애길 들을 때는 작은아이가 어릴 적에 LG사이언스랜드의 여러 가지 과학송을 들려주며 공부시켰던 기억이 났다. 사실, 어린이들에게는 딱딱한 이론보다는 노래를 통해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알고 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노래가 나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는지 알기 때문이다. 노래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력은 엄청나다.

글을 쓰는 데는 자신이 없지만 앞으로 강의내용을 압축시켜 개사하는 훈련을 해서 팩트를 전달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 <전 세계를 뒤흔든 창세기 대홍수>, <많은 동물이 어떻게 방주에 탔지?>, <내 몸에 숨겨진 보물지도>, <하나님이 공룡도 만드셨나요?> 이 다섯 가지 주제에 대해서 완벽하게 숙지하고 강의할 수 있다면 교회에서 주일 학교 강의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중고등부 수련회에서도 강의를 가능할 것 같았다.

하지만 내가 강의하였던 대홍수와 공룡은 어느 정도 숙지가 되어있는데 나머지 세 가지 주제는 아직 부족한 것이 많다. 천천히 공부하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되거나 어려운 부분이 많지만 계속 공부하여 자라나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팩트를 가르쳐서 전도의 도구로 쓰임 받고 싶은 마음이 크다.

하나님, 나이도 많고 점점 쇠퇴해져가는 저의 뇌를 다시 살려주시고 저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해주세요~ **창조**

### 3. 창조과학 강사과정을 마치며(정현옥)

성경 통독을 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바라보며 만물에 깃들여 있는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며 눈을 열어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무엇으로 은혜를 갚을까라고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역사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도 생명의 주님으로 만날 수 있었고, 요한계시록의 심판주로 다시 오실 하나님도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있거나, 잘못 알고 있고 그것을 전하며 창조주 하나님을 왜곡하는 진화론자들의 주장을 배우고 있는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가르쳐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난 곳이 창조과학회 대구지부였습니다.

창조 신앙 회복의 중요성을 함께 나누며 중요성과 필요성을 느끼며 준비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관점으로 진화론의 허구와 단순한 결론을 두고도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에 몰어들어 있다는 사실을 보며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느끼며 창조과학에 대한 교육과 학술적인 연구가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가 될 것을 기도하며 창조사역을 하고 있는 그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기본과정을 통해서 우주의 창조, 인류의 기원, 인체의 신비, 지층과 화석, 노아홍수, 성경과 과학, 교과서 속 진화론을 배우며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에서 새로운 정보들을 배울 수 있어서 매주 창조과학 공부를 하러 가는 날이 기다려졌습니다.

수업이 진행되기 전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 속에서 나누는 교제의 시간도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가르쳐 주는 분들이 계시고 듣고싶어 하는 사람들이 모여 공부하는 기본과정의 열정은 강사과정 못지 않게 열정적이고 적극적이었습니다.

기본과정의 열정은 4기 심화과정으로 이어졌고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배우고 복음전도의 강력한 도구로 창조과학을 사용하기 원하는 분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심화과정을 수료하고 나면 강사과정 수강자격이 부여된다고 해서 강사과정까지 도전해보아야겠다는 마음으로 심화과정의 수업도 열심히 듣고 배웠습니다.

기본과정 때와는 달리 심화과정의 내용을 한권의 책으로 만들어 주셔서 정리정돈이 잘 안되는 저에게는 참으로 좋은 자료였습니다. 진화론의 역사와 악영향, 생명설계와 창조의 증거, 우주창조와 연대, 성경의 창조신앙 및 창조과학 Q&A 등을 배우면서 배경지식이 없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나의 무지함을 보며 더욱 많이 공부하고 배워야겠다고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듣는 귀는 있어도 말로 표현해내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답답함은 있었지만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전달해주고 싶어 하고 관심 갖고 질문하는 우리들의 질문에 잘 대답해주시는 분들을 보며 감사했습니다. 배워서 남주는 기쁨이 있는 창조과학회가 재미있었습니다.

심화과정 수료 후 강사과정이 열리기까지 시간이 좀 있어서 더욱 기다리며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첫날 모임에 많은 분들이 강사과정을 신청해 주신 것에 대해서 많이 놀랐습니다. 시간과 장소에 맞게 조를 짜고 주제발표 및 연습을 하는 시간순서를 정하고 다음 만남을 기약하며 헤어졌습니다. 첫날 모임 때 강의 교수법을 준비해주신 내용이 조편성 하는 데 많은 시간이 사용되어져서 많이 듣지 못한 것이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발표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과 사용해야 하는 과학적 언어들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들의 중요성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것이 아쉬웠습니다.

강의 교수법 시간이 왜 첫날에 있었는지는 주제발표와 강의안을 이해하고 나서 그 필요성을 미리아시고 배려해주신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수업시간에 집중하지 못한 뒤늦은 후회도 있었답니다.

B조는 김종일 목사님의 배려로 발표할 수 있는 환경과, 따뜻한 차로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연습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처음에 강의안과 PPT를 받고서는 과학적인 용어들의 정돈된 표현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서 발표하고자 하는 주제와 강의안과 PPT사용을 적절하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첫날 발표하고 나서 권진혁 교수님과 여러분의 피드백을 들으면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전달해주신 발표내용이 대상들의 눈높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준비가 덜 되어져서 강의안에 의존하며 떠들 떠들 발표하며 40분이라는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모습이었습니다. ㅎㅎㅎ 그날을 생각하니 지금도 식은땀이 흐르는 것 같아요. 각 조에 배정되신 교수님들과 PPT를 만드신 분들과의 의견이 사전에 없었던 것 같이 우리들의 PPT를 전면적으로 지적해주셨고, 새로운 PPT를 만들어서 소화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저의 생각에는 창조과학 강사과정 주제별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것들을 강사가 추가하고, 빼고 해서 새롭게 만들어도 된다고 하는 피드백은 쉽게 와 닿지 않았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PPT를 만드신 정재훈선생님을 연락해서 PPT와 강의안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내용이 무엇인지 배우는 시간을 가지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잘 만들어진 PPT와 잘 정돈된 과학용어를 사용한 강의안에 대해서 미리쥬 전달하는 시간이 있었다면 정말 좋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강의안의 주제발표를 10분~15분씩 발표하는 그 시간에는 주어진 강의 내용 중에서 우리에게 발표할 범위를 지정해주고 그 부분을 평가해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강사과정의 기간이 짧다는 아쉬움이 있구요, 강사과정을 수료하고 나서 창조과학회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누가 될까하는 염려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과정을 끝을 내면서 새로운 시작의 문이 열려지는 것으로 더욱 분발해야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시간을 내어서 책도 많이 읽어보고, 동영상도 많이 보면서 창조과학회의 정돈된 과학용어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전달하고 싶다는 마음에서 가을 책이 막 읽고 싶어집니다.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여러분의 수고와 기도에 감사합니다. **창조**

## 4. 창조과학 강사과정을 마치며(하수연)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 때 저 하늘 끝에서도 나를 지켜보시며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화론을 배우면서 저는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중,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모두 진리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조새도 있고 원시인간도 증명되었다고 하고 생명도 자연히 발생할 수 있다고 하면서 사람도 진화되었다고 배웠습니다.

저는 하나님 믿는 것을 숨겼습니다. 그들 앞에 부끄러운 존재, 고개 숙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누군가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선생님께 얘기할까봐 덜덜 떨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그러나 대학 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룹에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늘 마음에 남아 찌꺼기 같은 것이 과학 책의 주장들이었죠!

방황한 만큼 창조과학에 관심이 많았고 그동안 많은 책들과 자료들을 보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 줄만큼 체계화 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저처럼 방황하는 다음 세대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원하던 창조과학에의 입문을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주를 배우면서 미세조정하여 우리의 생명체를 살리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세밀하심을 다시 한번 체험했습니다. 자연 속에 숨겨 놓으신 자연의 신비를 배우며 하나님의 숨결을 느낍니다. 노아의 홍수의 증거와 공룡의 존재 시기와 방주를 배우며 성경의 기록들이 진짜 사실임을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더욱 더 공부하는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많은 책과 자료들을 반복하여 보기 시작하였습니다. 방황의 수많은 세월만큼 저의 설레임도 폭발했습니다. 알면 알수록 더욱 하나님의 오묘하시고 위대하신 창조하심에 놀라고 있습니다. 제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고 하신 말씀에 또 다른 하나의 무기를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기쁘고 기쁩니다.

여러 스텝들과 선배님들 좋으신 교수님들을 만나게 됨도 인생에 있어 행운아가 된 듯 합니다. 감사하며 더욱 감사할 뿐입니다. **창조**

강사과정 수료 독후감  
제3기 강사과정 수료자

## 1. 당신이 몰랐던 유신진화론 책을 읽고(박현애)

유신진화론 책 제목처럼 난 무지했다. 책 겉표지를 열었을 뿐인데 난 얼음이 되어 버렸다. 기독교와 진화론을 어떻게든 타협해 보려는 유신 진화론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창조사역을 자연주의적 진화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 주장이라니 표지 설명을 읽었을 뿐인데 이것이 교회 안에 자리잡은 진화론이며 한국교회가 처한 현실이라는 말이 너무나 충격적으로 다가왔다.

책갈피를 넘기기가 겁이 났지만 과제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책장을 넘겨보았다. 이런, 이런, 이런, 이럴 수가~~~~ 나는 생각해 보지도 못할 감히 입에 담고 눈으로 읽기가 민망한 내용인데 아~~읽는 것이 맞을까 내 눈이 더러워질까봐 그냥 말아야 할까.

아담의 타락으로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죽음을 이기신 대속에 근거한 예수그리스도를 회개하며 받아들이는 복음의 핵심을 왜곡한 아담이전에 죽음이 있었다는 주장, 예수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필요를 무효화시키는~~ 복음의 핵심인 창조, 타락, 십자가, 부활, 재림을 시작부터 왜곡시키고 그 결과 복음전체의 변질을 초래하는 유신 진화론. 그래, 내가 먼저 알고 혹 누군가가 이 유신진화론으로 변질된 분별하지 못하는 성도와 다음세대에게 당당하게 맞서야겠다는 생각에 책을 읽어 왔다.

무생물에서 생물의 출현, 실제 자연 상태와 다른 인위적인 기구를 이용하여 아미노산을 합성하고 세포와 비슷한 모양을 가진 복합체를 만드는 실험에 성공했을 뿐인데, 진정한 현대 과학은 오히려 생물의 자연발생설을 부정하고 있다.

DNA의 수많은 정보를 자연현상이 만들어 낼 수 없음과, 진화론자들의 진화의 원인이 돌연변이와 자연선택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또한 자연현상으로는 사실상 인간으로의 진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된다.

창조와 진화가 양립할 수 없는 이유를 살펴보았다. 다윈의 종의기원, 다윈의 세계관, 적자생존으로 자손을 남기는 인간 역시도 자원과 먹이를 놓고 벌이는 경쟁을 통해 적자가 선택되는 방식으로 현재에 이르렀다는 이러한 생명관이 유신진화론의 입장이라나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애초부터 스스로 자연법칙에 의하여 생명을 창조 할 수 있도록 하셨으므로 생명의 창조와 관련하여 어떠한 기적적인 개입을 전제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유신진화론의 주장 - 참으로 어이가 없지 않은가 성경은 단지 도덕과 가치만을 말하며 자연은 자연에 대한 객관적 사실을 말해 준다는 식으로 각각에게 분리된 독립적 지위를 누린다고 생각한다. 초자연적인 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제한하고 나서 이러한 자신의 생각이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하다니 ~~~~~ 6일 창조를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이들은 신화나 우화로 여길 뿐이라고 한다.

결론적으로 유신진화론은 성경의 교훈은 물론 성경 자체를 허물고 있다. 과학과 신앙의 조화는 과학적 방법론으로 합쳐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과학보다 위에 있는 창조진리 안에서 합쳐질 수 있는 것이다. 모든 피조 세계의 질서가 우연히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설계자의 지혜를 나타내는 것이고 과학은 단지 그 질서를 설명할 수 있을 뿐, 그 질서의 기원을 밝힐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과학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이를 수 있는 영역이고 창조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이 주장을 쉬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론은 이론일 뿐이다. 과학자들이 밝힌 많은 법칙에 위배되는 잘못된 이론임을 알면서도 믿고자 하는 저들을 향해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우리는 교회와 다음세대들의 정신과 혼을 혼탁하게 하는 저들의 세력에 맞서 바른 성경에 입각한 창조주 하나님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호흡이 있는 동안에 전하고 전해야 하는 책임을 느끼며 힘든 마음으로 책을 덮었다. **창조**

## 2. 당신이 몰랐던 유신진화론 책을 읽고(안연옥)

요즘 늘어나는 유신진화론에 대해서 교계에서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유신진화론자들은 교회의 공식예배에까지 초대되어 합리적인 창조론을 주장하므로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창조과학을 무지한 믿음으로 치부한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창조사역에 대한 믿음을 흔들게 한다. 이 시점에서 이 책을 읽게 된 것이 나에게 참으로 의미가 있으며 유익한 정보를 주어서 감사하다. 내가 몰랐던 유신진화론은 어떤 것인지 살펴 보자.

유신론적 진화론은 하나님께서 진화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우주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주장한다. 하나님께서 진화라는 방법으로 그 일을 진행하셨다고 하면 성경과 진화론과의 갈등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고체계이다. 이 사고 체계의 배경에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만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자연 법칙에 의한 변화과정을 이용해서서 창조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진화론은 상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혼합이다. 혼합이론은 가증한 것이다. 진화론을 돕는 이론은 결단코 합리적 창조론이 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한다.

진화론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자연현상과 물질만으로 우주와 생물의 기원을 설명한다. 유신론적 진화론자들은 진화론과 기독교가 조화를 이루어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판 받지 않아서 스마트해 보인다. 과학도 끌어안고 신앙도 포기하지 않는 영리함이 매력적이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속게 된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성경을 믿는 우직함은 '바보 이반'의 미련함으로 보인다. 또 그들은 복음의 기초를 파괴한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고통과 죽음이 처음부터 있었고 그 생존 경쟁에서 이긴 자가 살아남아 대를 이어감으로써 하등동물로부터 진화되어 인간이 생겨났다고 주장한다.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진화론을 부정하는 이유가 진화론은 과학적 이론이 아니며 성경의 내용과 다르게 말하고 있고 또 복음을 파괴하기 때문이다.

유신진화론은 성경교훈을 종교적이며 도덕적인 주관영역에 제한시키고 자연에 대한 객관적인 영역을 해석하는 권위를 과학에 돌리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창조과학조차도 결코 완전하지 않으며 말씀에 늘 부합되지는 않지만 우리는 기독교 변증과 하나님을 높이는 일, 그리고 진화론의 허구에 대응하기 위해 창조과학을 배우고 전해야 한다. 또 생명체가 물질로부터 저절로 생기거나 한 생명체가 유전정보 설계도가 다른 생명체의 설계도로 변화되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적이 없다. 도리어 이런 일은 과학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명백하다. 놀랍도록 복잡하고 정교한 유전정보 설계도는 진화보다는 하나님의 초월적 창조를 믿을 수밖에 없게 만든다. 유신진화론자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과학과 이성만으로 설명해야 정당한 설명되며 성경해석에 진화론을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는 주장은 매우 슬픈 일이다.

유신진화론자는 과학으로 탐구하되 탐구가 불가능한 지점을 알고 겸허히 인정하여 하나님의 창조와 말씀을 믿어야 한다. 지식이 증가하는 이 마지막 때에 성경을 무너뜨리고 진리를 뒤섞어버리는 이론과 사상의 출발점이 어디인지 아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믿음'과 '신앙'이 무엇인지 말씀 앞에서 기도하며 깊이 고민하고 답을 얻어서 창조주의 흔들림 없는 말씀에 단단히 뿌리를 고정해야 한다. **창조**

### 3. 당신이 몰랐던 유신진화론 책을 읽고(정현옥)

**유신론적 진화론은 받아들일 수 없다: 유신 진화론의 문제점과 그 영향력**

유신론적 진화론은 하나님께서 진화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우주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주장이다. 우주와 생물의 기원에 대한 진화론의 주장이 과학적 사실이라는 신념으로부터 출발한 것으로써, 하나님께서 진화라는 방법으로 그 일을 진행하셨다고 하면 성경과 진화론과의 갈등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고체제이다. 과연 하나님께서 진화의 방법을 이용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까? 유신론적 진화론의 주장이 기독교에 미치는 나쁜 영향은 무엇인가? 유신론적 진화론의 문제점을 살펴보자

#### 1. 진화론은 바른 과학이 아니다

유신론적 진화론을 주장하는 분들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진화론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우주와 생물이 원시적인 상태에서부터 출발하여 진화하였다는 진화론의 내용을 수용한다. 그래서 이들은 우주와 생물들이 창조주가 동안에 완전하게 창조되어 출발했다고 주장하는



창조과학자들에 대해서는 현대과학을 무시하는 사람들이라고 비난하기도 한다. 현재 학교에서 가르치는 진화론 중에서 과학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내용들이 있다. 학교에서는 지구가 냉각되어 바다가 형성된 이후, 무려 수억년의 세월동안 무기물이 아미노산과 단백질로 합성되고 세포로 발전되는 과정을 거쳐, 지금으로부터 38억 년 전 박테리아와 같은 최초의 단세포 생물이 발생하였을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창조과학자들은 화학진화라고 불리는 이 과정을 과학적으로 볼 때 틀린 추측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무생물에서 생물이 출현하는 과정은 실험을 통해서 입증된 적도 없으며, 가능성 또한 없어 보인다. 단지 실제의 자연 상태와 다른 인위적인 기구를 이용하여 아미노산을 합성하고, 세포와 비슷한 모양을 가진 복합체를 만드는 실험에 성공하였을 뿐이다. 이 정도의 실험을 근거로 복잡한 기관을 가진 생물이 자연발생 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과연 바른 과학이라고 할 수 있는가?

## 2. 진화론은 성경의 가르침과 다르다

성경에 기록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생물로서 처음부터 풀, 씨 맺는 채소, 열매 맺는 나무와 같은 완전한 식물을 창조하셨지, 박테리아와 같은 단세포 원시생물로부터 진화하도록 창조하시지 않았다. 식물뿐만 아니라, 물고기, 새, 육지의 동물들도 각각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다. 단세포 생물이 오랜 세월동안 발전하면서, 조개, 물고기, 개구리, 도마뱀, 사슴 등 여러 가지 종류의 생물과 인간이 만들어졌다는 진화론의 주장과는 판이하다.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다른 진화론을 수용할 수 있겠는가?

다윈의 진화계통나무는 모든 생물들을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의 공통조상을 갖는다는 것인데 성경은 하나의 공통조상이 아닌 서로 다른 많은 기본적 종류들로 생물들이 창조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거기서부터 종의 분화를 통해 다양한 생물들이 된 것이다. 한 그루의 나무가 아니라 여러 그루의 과수원을 말한다. 과수원에 있는 각 나무들은 기본적 종류들이다. 각 나무의 가지들은 오늘날의 생물들을 말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성이 나타난 것이지만 다양성의 변화가 진화는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물들을 창조하실 때 그들이 살아가는 환경에 적응될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고 생각한다.

과연 하나님께서 생물들을 진화시키기 위해 돌연변이와 자연선택 현상을 이용하셨을까? 자연선택의 핵심은 생존경쟁과 적자생존이다. 오랜 세월이 걸리고 어떻게 변할지도 알 수 없는 돌연변이와 자연선택이라는 불확실한 방법으로 시행착오를 반복하면서 생물들을 만드시겠는가? 이것은 사랑이 많으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적인 한계 안에 두고 설명하고 있다.

### 3. 진화론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한다

진화론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자연현상과 물질만으로 우주와 생물의 기원을 설명한 이론이다. 그러기에 진화론을 주장하는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무신론자들이다.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진화를 일으킨 분이 하나님이라고 아무리 주장한다 해도 그들은 비웃으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대표적인 진화론자인 리처드 도킨스는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출간해서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의해서 만들어진 허구라고 주장하였다.

천체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은 [위대한 설계]에서 우주의 시작이 과학법칙에 의해서 지배되며, 어떤 신의 손길도 필요로 하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우주내의 모든 것이 자연법칙에 의해서 저절로 만들어질 수 있어서 신이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유신론적 진화론의 주장은 신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진화론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창조주 하나님은 명목상 인정하고,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사람들의 손에 의해 조종되는 신으로 믿게 될 것이다. 하나님도 믿고, 진화의 방법을 사용하셨음도 믿는 것이 서로 한발씩 양보해서 타협하는 아주 평화적인 방법인 것처럼 위장하고 들어오는 진화론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숭배하던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를 반복하게 된다.

### 4. 진화론은 복음의 기초를 파괴한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위해 완전한 낙원을 창조하시고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셨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한 죄의 결과로 이 세상에 삶의 고통과 죽음이 오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그 고통과 죽음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인간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용서해 주셨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회복된 낙원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 이 기쁜 소식이 복음이다.

그런데 진화론에서는 그와 반대로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겪게 되는 고통과 죽음이 처음부터 있었고, 그 생존경쟁에서 이긴 자가 살아남아 대를 이어감으로써 하등동물로부터 진화되어 인간이 생겨났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진화론의 주장은 아담과 하와를 인간의 조상으로 여기지 않으며, 그들이 지은 죄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 복음의 기초가 되는 창세기 기록을 믿지 못하게 하여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유, 아니 그 이전에 예수님의 성육신의 사실도 그 목적도 없이 그저 이 땅에 태어난 한사람의 인간으로만 받아들이게 한

다.

진화론자나 이단들이 창세기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을 이토록 왜곡하고, 엉뚱하게 주장하는 이유는 복음의 기초는 창세기 위에 세워진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기초를 무너뜨리면 그 위에 세워진 모든 것은 와르르 무너져 버리기 때문이다. 그들은 창조와 원죄의 내용을 부인하고 삭제해버린다고 하면 성경에 남아있는 모든 내용들은 이해할 수 없게 될 것임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진화론자들은 창세기라는 성경목록을 삭제해버리고 싶어 한다. 그것은 마치 일층 없는 고층건물이요 교각 없는 다리와 같음을 저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창세기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 만약 창세기에 있는 다섯가지 중요한 사건인 천지창조, 타락, 대홍수심판, 바벨탑사건, 인간으로 태어나신 창조주에 대한 사실을 신화적인 개념으로 생각하고 성경에서 믿으면 구원받는다든 그 말만 생각하고 덮어놓고 무조건 믿는다고 우겨서는 진정한 구원의 선물이 기쁘지 않을 것 같다. 그 기록된 내용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핵심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창세기에 기록된 사실을 다만 믿는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하고 사탄이 무너뜨리려고 하는 복음의 기초인 창세기가 왜 그렇게 중요하며 왜 그들은 그것을 물고 늘어지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알아야 제대로 지킬 수 있을 것이다.

기독교인들은 창조론이라는 이 기초를 재건해야 하며, 진화론의 허구성과 비과학성을 세상에 알림으로써 진화론을 효과적으로 공격해야 할 것이다.

## 5. 진화론은 성경을 불신하게 한다

진화론의 내용은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여러 가지 면에서 성경의 기록과 매우 다르다. 그래서 진화론을 증명된 과학적 사실이라고 믿게 되면, 성경을 불신하고 의심하게 된다. 먼저는 창세기를 믿지 못하게 되고, 그 여파는 성경전체로 번져가게 된다. 이것은 이미 기독교의 역사에서 드러난 사실이다.

기독교의 기초를 위협하는 다윈의 진화론이 등장하였을 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거세게 비판하였다. 그러나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창세기의 기록을 역사적 사실로 해석했던 전통적인 신앙을 포기하고, 유신론적 진화론으로 쉽게 타협하고, 이것이 성경을 진화론에 맞추어 다시 해석한 자유주의 신학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성경은 분명히 과학책이 아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난 과정을 과학적으로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다. 성경의 중심 주제는 인류의 구원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과학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고, 사건의 과정과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기록하지 않았다. 그러나 성경은 창조와 노아의 홍수 사건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비교적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만약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면 왜 그렇게 자세하게 성경에 기록하겠는가? 창조와 노아 홍수에 대한 기사는 창세기 외의 여러 성경에도 언급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인용하시고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셨다.

진화론을 수용하는 유신론적 진화론의 주장은 마치 불을 안고 집안으로 뛰어드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해로운 불을 끌어들여 집안의 중요한 것을 모두 태우는 것처럼, 진화론을 수용하는 유신론적 진화론을 인정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인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불신하게 만드는, 교회를 쇠퇴하게 하는 어리석은 행위이다.

세계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나라였던 영국의 경우 세계선교를 주도하고 가장 많은 성경을 보급했던 영국이 오늘날에는 국민의 5% 이하만이 교회에 출석하는 선교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영국에서 다윈이 출생하여 전 세계에 진화론을 퍼뜨렸고, 지금도 영국에서 도킨스나 호킹과 같은 진화론자들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케 한 결과이다.

성령의 감동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기도가 필요하다. 유신론적 진화론이라는 사단과의 전투에서 모든 기독교인들은 창조주를 위한 군병들이 되어야 한다.

## 결론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진화론을 부정해야 하는 이유는 진화론이 과학적으로 타당하지 않고, 성경이 가르쳐 주는 내용과 매우 다르며, 복음을 파괴하는 선교의 걸림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같은 이유로 진화론을 수용하는 유신론적 진화론도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되어야 한다.

성경이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한발씩 물러서게 되면,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는 확고한 성경적, 과학적 창조론으로 무장하여, 거짓 과학이론인 진화론과 타협하거나 굴복하는 일이 없이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지켜, 오고 오는 세대에 게 풍성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전해주어야 하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 **창조**

# 지 부 소 식

**2016년 9월 29(목)~2016년 11월 10일(목)**

강사과정 제3기 (2016년 11월 10일 수료식)



**2016년 11월 12일(토)**

창조과학 탐사여행 - 장소: 마이산

**2016년 11월 17일(목)**

창조과학회 대구지부 정기모임

## **\*\* 편집자의 변 \*\*\***

기본과정과 심화과정, 강사과정을 진행하느라 지난 몇 달 간 숨가쁘게 바쁘게 지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이 시대에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 생각하기에 기쁘게 감당했습니다. 세월이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뉴스레터가 우리 지부 사람들만의 글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성암골에서)

본 전자소식지를 계속해서 받아 보기 원하시면, 저희 창조과학회 대구지부 홈페이지([creation21.or.kr](http://creation21.or.kr))를 방문하셔서 회원가입(무료)하시고, 가입하실 때 반드시 E-mail 주소를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요청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다음 이메일 주소([creation21.or.kr@gmail.com](mailto:creation21.or.kr@gmail.com))로 요청사항을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달마다 더욱 좋아지는 소식지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